



교합고경 상실을 동반한 엇갈린 교합의 보철

김수성*, 방동숙, 양홍서, 박상원, 박하옥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엇갈린 교합은 상하악의 잔존치끼리 엇갈려 교합 접촉을 잃는 상태로 다른 증례와 특별히 구별해 온 것은, 단순히 형태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보철 진료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증례이기 때문이다. 엇갈린 교합은 교합위의 불안정, 치조제의 이상흡수, 교합평면의 이상과 함께 의치의 지지, 안정 유지가 어려우며 의치상의 침하에 의한 점막의 통증과 흡수 등의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엇갈린 교합에서 회전침하는 상하악 의치에 동시에 일어나고, 상호간에 침하를 조장하기 때문에, 단독인 경우보다 심한 교합평면의 경사로 나타난다. 또한, 이 회전침하는 매일 교합과 저작의 stroke마다 상호회전변위가 쌓여 겹쳐진 결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회전변위는 전후 엇갈린 교합의 경우 결손부에 인접한 지대치를 좌우로 연결하여 치열궁을 횡단하는 선을 회전축으로, 좌우 엇갈린 교합의 경우 잔존치를 근원심으로 연결하고 치열궁을 종단하는 선으로 회전축을 형성한다.

이러한 엇갈린 교합의 설계방침은 이 불안정한 교합 상태를 가능한 한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상하악 의치의 상호회전변위를 저지하고, 역학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악의 설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경구개부에 지지를 구하는 설계로 의치상 후연은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지대장치는 협설적인 파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정기 검사에 의한 적절한 relining, remolding으로 점막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하악의 설계의 경우 연결장치로 lingual bar와 연속절연 rest, 연속 cap clasp를 사용하고 의치상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넓게 retromolar pad는 가능한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며 이중구조로 설계하여 의치의 강성을 높이고, 휘어짐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결손부 치조제 점막을 보호하고 그 흡수를 저연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증례는 좌, 우 엇갈린 교합을 이루며 교합고경을 상실한 환자에서 불안정한 교합상태를 안정화시키며 의치의 상호회전변위를 저지할 수 있는 보철물을 제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